

16일 Market Index			
↑ 코스피	5549.85 (+62.61)	↓ 코스닥	1138.29 (-14.67)
↓ 금리 (2년)	3.300 (-0.038)	↑ 환율 (원/달러)	1499.00 (+5.30)

metro® 경제



삼성전자, 이익잉여금 400조 '투자 실탄' 충전

이익잉여금 전년 대비 8.5% 상승
순현금 100조... 재무여력 강화
작년 R&D·시설투자 90.4조 투입
화성·평택 사업장 D램 공정 전환
신규라인 증설 등 생산능력 확보

삼성전자의 이익잉여금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순현금 역시 3년 만에 1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축적된 유동성을 기반으로 차세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행보가 확대될 전망이다.

16일 삼성전자 202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이익잉여금은 402조 1356억원으로 전년 370조 5131억원 대비 약 8.5% 상승했다. 2024년(346조 6522억원)과 비교했을 때도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재무 여력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순수익이 사내에 축적된 자금을 의미한다.

삼성전자의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규모는 약 125조원 수준으로 차입금을 제외한 순현금도 100조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회사의 현금 보유 규모가 확대되면서 향후 투자 여력도 커질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쌓아둔 현금을 바탕으로 신규 투자나 인수합병(M&A) 등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구개발(R&D)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인 37조 7000억원을 투입했으며 시설투자(CAPEX)에도 52조 7000억원을 집행하며 기술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투자는 AI 시장 확대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고용량 DDR5 등 차세대 반도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HBM4를 통해 AI 반도체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총 52조 7000억원의 시설투자를 집행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경기 기흥 캠퍼스에 건설 중인 최첨단 R&D 복합단지 'NRD-K' 등 미래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한 투자도 지속 중이다.

아울러 경기 화성사업장에 차세대 D램 공정 전환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규 생산라인 증설도 병행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케데한 '골든' 2026 아카데미 최우수 주제가상
이재(EJAE)가 15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열린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한) OST '골든'으로 최우수 주제가상을 받은 뒤 공식 뒤돌이 '거버너스 볼' 행사에 참석해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관련기사 L4면) /AP·뉴시스

'1500원' 환율 뉴노멀?... 韓 경제 충격

중동사태 장기화 후폭풍 국제유가 100달러 수준 폭등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달러당 1500원선을 위협하고 있다. 중동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유가 상승이 지속된다면 국내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에 원화값이 하락했다. 환율 변동성을 우려한 정부가 구두개입을 지속하고 있지만 환율 상승 요인이 여전히 고환율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2·3면)

◆ 달러당 '1500원' 목전

16일 서울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97.50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 거래일 주간거래보다 3.8원 오르며 달러당 1500원선을 목전에 뒀다. 이날 환율은 장 초반 달러당 1501원까지 상승했는데, 달러가 주간거래장중 1500원을 넘긴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3월 12일이 마지막이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은 '중동사태'가 장기화하면 국내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에서다.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중동사태 직전 배럴당 60달러 수준이었던 국제

유가는 최근 배럴당 100달러 전후에 거래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동사태'의 종전이 임박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란의 정유시설이 위치한 하르그섬을 겨냥한 미군의 폭격과 미 해병대의 중동 파병 소식이 전해지는 등 '중동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은 원유의 70~80%를 중동에서 수입해 정제한다. 이번 유가 상승에 원화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3면에 계속) /만승진 기자 asi1231@metro

삼성SDI, 1.5조 ESS 배터리 수주... 북미 공략 속도

올해부터 4년간 단계적 물량 공급
NCA 시작으로 LFP 순차공급 계획

삼성SDI가 미국 에너지 기업과 1조 50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북미 ESS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SDI는 16일 미주법인 삼성SDI 아메리카(SDI America)가 미국의 에너지 전문 기업과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

는 약 1조 5000억원이며 올해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배터리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위치한 삼성SDI-스텔란티스 합작법인 스타플러스 에너지(SPE) 공장에서 생산된다. 삼성SDI는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배터리를 시작으로 LFP(리튬인산철) 배터리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주력 제품인 삼원계 배터리뿐 아니라 LFP 배터

리까지 제품군을 확대하며 ESS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SDI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따라 ESS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사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미국 에너지 인프라 개발·운영 기업과 2조원을 웃도는 규모의 ESS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4면에 계속) /원관희 기자 wkh@metro

오가노이드 기반 장질환 재생치료제 세계 첫 임상 진입

국내 기업이 만든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가 세계 최초로 임상 단계에 진입한다. 난치성 장질환 치료 패러다임을 바꿀 차세대 재생치료 기술의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라 기대가 높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자가 성체줄기세포 유래 장 오가노이드 치료제 아톰(ATORM)-C의 대장 궤양을 동반한 크론병 환자 대상 1상 임상시험계획(IN D)이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승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에 신청된 이후 약 3개월만에 이뤄진 것으로, 세계에서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가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한 첫 사례다.

크론병은 만성 염증성 장질환으로 장 점막에 반복적인 염증과 궤양이 발생하는 난치성 질환으로 장내 궤양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궤양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장 협착, 천공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 현재 다양한 약제가 사용되고 있지만 만성질환의 특성상 상당수의 환자에서 치료되지 않은 궤양이 남아 질환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은 한계가 있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아톰-C' 난치성 장질환 치료 새 패러다임 줄기세포치료제 진일보 치료법

ATORM-C는 환자의 장 조직에서 추출한 조직유래 줄기세포를 3차원 오가노이드 배양 기술로 제조한 '장 오가노이드'가 주성분이다. 이 치료제는 손상된 장 점막 조직의 재생을 유도해 기존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난치성 궤양을 치료함으로써 장내 염증을 줄이고 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ATORM-C는 손상된 장 점막 부위에 직접 이식되어 실제 장 상피세포로 분화함으로써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기존 줄기세포치료제에서 진일보한 차세대 치료법이다.

이번 1상 임상시험에서는 ATORM-C 투여 후 내약성과 안전성을 평가하여 최대내약용량(MTD) 및 제2상 권장용량(RP2D)을 결정하고, 동시에 탐색적 유효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임상시험에는 총 9명에서 18명의 환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약물 투여 후 24주까지 추적 관찰하며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게 된다.

임상시험은 우리나라 염증성 장질환 분야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환자와 진료 경험을 갖춘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된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metro

메트로 한줄뉴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단 책임명 보류... "일부 우려 목소리" /사진 뉴시스
▲이인제 "김영환 컷오프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공정 경선 촉구

▲김 총리, 방미 중 원격 간부회의...경제·사회 현황 점검·지시
▲정청래 "대구시장 후보 추가 접수 필요할 수도"...'김부겸 차출론' 계속

▲與, 국힘 이장우·김태흠 단수공천에 "절운" 외쳤지만 친윤 공천
▲與, '성추행 의혹' 장경태 징계 심사 연기... "수사심의위 개최 고려"